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산리쿠 해역에서 규모 9.0의 거대한 지진이 발생하여 후타바 정은 진도 6강의 강한 흔들림을 겪었다.

가옥은 붕괴되었고, 도로는 손상되어 단절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후타바정에는 높이 최대 16.5미터의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와 21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게다가 자연의 맹위를 겪은 마을 주민들에게 원자력 재해가 겹쳐 닥쳤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로 심부 손상과 수소 폭발 등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여 전 주민 7,140명이 장기 피난을 강요당했다. 주민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고향인 후타바정을 떠나야만 했다.

2022년 8월 30일, 마을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대피 지시가 해제되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복합 재해라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전통과 문화를 토대로 삼고, 복구와 고향 재생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다.

우리는 유례없는 재해로 인한 참사와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함과 동시에 마을 주민들 간의 유대를 굳건히 유지하며, 고향 후타바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로 굳게 다짐하며 이 비석을 세운다.

2026년 3월

건립자: 후타바정